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쟁크탱크: 미래디자인융합센터

2015

디자인진흥원사

- 제15대 정용빈 원장 취임
- 미래디자인융합센터 개관
- 중부창업보육센터 개소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시작
- K디자인숍 오픈(유통지원사업)
- 중국 이우 한국생활디자인센터 개소
- 글로벌생활형품관 개관
- 디자인영재아카데미 STEAM 체험관 개관

한국 디자인사

-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전 『교, 향』 개최
- 디자인넥스트(박철웅), 우퍼디자인(한경하) '백만 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 사회사

- 호남고속철도 개통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발생
- 우편번호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경남 양산은 울산과 부산 사이에 위치해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두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연남 도시권을 형성한 지역이다. 2015년 2월 이곳에서 문을 연 ‘미래디자인융합센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쟁크탱크이자 지역의 혁신 발전 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연구센터가 아닌 정부 차원의 미래 디자인 연구와 전략을 위한 연구센터가 들어선 것은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처음이다.

양산시가 제공한 약 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6,31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 이 센터는 창고 8개를 붙여 놓은 듯한 외관으로 완공되자 큰 관심을 끌었다. 미래디자인융합센터 건축물은 실제로 디자인 창고라는 콘셉트에서 출발했는데, 건축설계 공모에 당선된 김찬중 건축가는 이에 대해 “앤디 워홀, 잭슨 폴락, 비틀즈,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혁신적 사고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그들이 주로 머물렀던 공간의 성격 자체는 자유로움이었으며 확장성이었다. 짧은 시절 그들에게 혁신, 창고 등의 공간은 비일상적이지만 웅장하고 때론 포근하며 창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 끊임없이 창의적이며 혁신적 사고에 도전을 해야 하는 디자인을 다루는 연구

소의 타이틀로지로서 새롭게 해석된 디자인 혁간을 제안한다. 이곳에서 일하며 연구하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한 혁신적 사고들의 탄생과 반응을 기대해 본다”⁶⁶고 말했다. “외관만 보고도 이건 병원, 저건 학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물이 많은 사회는 건조해지고 정형화하는데 이런 곳에 선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⁶⁷는 것이다.

창의성의 산실로서 미래디자인융합센터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디자인관련 연구실 및 연구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체계적인 디자인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를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힘든 디자인 연구는 물론, 다른 분야와의 다학제적 융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디자인 개발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돋는 디자인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기업 혁신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 지원 기능이 그 핵심 내용이다. 또한 국내외 우수 대학, 기관 등과 협업하여 양질의 디자인 연구 개발 및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결과의 사업화 연계는 물론 축적된 정보의 공유와 제공 등으로 국가 디자인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2016년 개최한 『디자인, 우리 삶을 변화시키다』와 같은 전시를 통해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 2018년에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어초등학교(양산)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 및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의 환경개선으로 92%의 주민 만족도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KIDP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우수 사업결과를 공유하는 ‘디자인 에필로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에는 일본디자인진흥원(JDP) 등과 함께 개관 이후 첫 국제행사인 ‘서비스디자인 학술대회 (ISIDC, International Service Innovation Design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미래디자인융합센터는 전시장, 컨벤션 훈, 커피숍 등의 개방형 공간과 VR 품평실, 디자인 스튜디오, 사용자 테스트 룸 등의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며, 2019년 12월 기준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